

고교 기숙사 주말 외출 제한...인권위 “행동자유 침해”

해당학교 규정 1·3·5주차 가능 병원 진료·가정사 등 예외적 허용 과잉금지 원칙 위배...방지책 권고

고등학교 기숙사생 동의 없이 주말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목적이란 기숙사생의 외출과 외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A 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주말 외출 제한조치를 중지하고, 기숙사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해당학교의 기숙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숙사생은 1, 3, 5주차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A 고등학교는 기숙사생에게 별도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올해 3월부터 1, 3, 5주차 주말에 외출을 제한하고, 병원 진료 및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의 한 기숙사생은 이 같은 조치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A 고등학교는 기숙사 관리규정에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기숙사생과 통학생은 1, 3, 5주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서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한다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또 학원수강, 종교활동 등을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

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교에 머무는 1, 3, 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A 고등학교의 기숙사생이 월 2회만 주말 귀가가 허용될 뿐,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밤 10시 40분에 종료돼 외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기숙사 관리규정상 주말 외출이 가능한데도 기숙사생의 동의없이 이를 제한한 피진정학교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자율형사립고인 B 학교 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B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 중인 한 재학생은 학교가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기숙사생 외출 및 외박 시행안을 마련해, 기숙사 학생들이 외출 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외박도 통제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재학생의 90%인 1,000여 명 정도가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 학교 기숙사생들이 평일 30분, 주말·공휴일 1시간 30분의 외출만 허용돼 자유로운 외부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외박이 전면 금지돼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수준에 비춰볼 때 학교의 조치는 과도하다”며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코로나 예방과 방역을 이유로 외출을 제한하고 외박을 전면 금지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용전들노래 재현 2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전마을 일원에서 열린 '제23회 용전들노래 정기공연 유두절 한마당'에서 용전들노래 보존회가 용전들노래를 재현하고 있다. 용전들노래는 용전동 일대에서 60년대 말까지 구전되어온 노동요로 한 해의 풍작과 이웃 간의 건강을 기원하는 전통문화유산이다. /김생훈 기자

무안 오룡지구 초교 신설...2025년 9월 개교

교육부 '사랑초' 학교 설립 승인

무안 오룡지구에 초등학교 1개교가 신설된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 '2022년 정지3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이 요청한 오룡2지구내 (가칭)사랑초등학교 설립을 승인했다.

지난 4월 정지 2차 심사에서 오룡 2지구 내 초1, 중1교가 승인 받아 2025년 9월 개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무안 오룡2지구 내 공동주택 6,138세대 건립에 맞춰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총 6개교(유 2, 초 2, 중 1, 고 1) 학교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통해 인근 학교 과대·과밀 해소와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

에 부응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가칭)사랑초등학교는 1만 5,000㎡ 부지에 총사업비 391억원을 들여 37학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가칭)사랑초등학교에 대해 2025년 9월 개교를 목표로 2023년 본예산에 설계비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광주·전남, 옛새째 3천명대 신규 확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여섯째 3,0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 하루동안 광주 1,670명, 전남 1,776명 등 총 3,446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 1,845명 대비 1,601명이 증가했다. 일일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8

일 3,026명 이후 19일 3,327명, 20일 3,344명, 21일 3,228명, 22일 3,382명에 이어 여섯째다.

광주·전남 지역 모두 사망자는 없었으며 위중증 환자는 전남에서만 7명이다.

전남 시·군별 신규 확진자는 여수 361명, 순천 317명, 목포 235명, 광양 150명, 나주 107명, 무안 84명 등이다. /임재민 기자

선거법 위반 도의원 70만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마을주민들에게 이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한숙경(44·여) 전남도의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2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고흥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상 이발 서비스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경선 운동을 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해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 30개월만 인플루엔자 검출

광주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6개월 만에 첫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됐다.

24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7월 2주차에 수집된 표본검체 41건 중 2건에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H3N2)형이 검출됐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주로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을 통해 쉽게 감염이 되고, 38도 이상의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전신 증상과 인후통, 기침, 가래 등 코로나19와도 유사한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

김용현 기자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p>광주에서 20분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h3>상무지구(상가매매)</h3> <p>1) 감평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4천)</p> <p>3) 평수140평, (전용100평)</p> <p>사무실, 바,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 시비없음, 시설완비)</p>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h3> <p>기초반, 중급반</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p>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정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p> <p>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p> <p>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p>
<p>010-6670-9800 (062-382-5500)</p>		